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AIDS 강제검진 대상 줄여

보사부 시행령 개정안 일시체류 선원 등 제외 당초방침 크게 후퇴...방역허점 드러내

석달이상 머무는 흥행업종사자만 실시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가운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나 정부가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대상자에서 이들은 빼고 91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흥행업종사자와 난민입국자에 대해서만 강제검진을 실시키로 해 에이즈 방역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선원의 경우 내국인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않고 있어 법 적용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외국인 에이즈감염자(미군 제외)

는 4명으로 지난해 10월 브라질 선원 2명이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에이즈감염자로 확인됐으며 올 3월과 5월 케냐인 구매상담자 1명과 미 국인 영어학원 강사 1명이 각각 에이즈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감염자로 밝혀졌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검진을 할 수 있도록

에이즈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사부는 지난 4월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흥행업자, 취업자, 연수자,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강제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외국공관등이 외무부등을 통해 압력을 넣자 보사부는 최근 외국인 강제검진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무용수, 가수 등 91일 이상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해 머무는 흥행업자와 난민 중 입국 허가자에 대해서만 강제검진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건 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 임종철 회장은 "보사부가 당초 지난 4월 포함시켰던 대상자에 대해서 강제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 크게 모자라는 실정인데도 이마저 대폭 축소시켰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고교생 AIDS 감염

보사부는 4일 지난 6월 헌혈과정에서 혈액검사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난 김아무개(18)군은 확인결과 서울지역 고교 3년생이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김군이 동성연애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사부는 김군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시 신분을 위장, 무직자로 언론에 보